

金有平 여수海警회장 장학금 5천만원 寄託

- “한번 警察은 영원한 警察”소신 변함없어 -



허준영 前 경찰청장에게 감사장 전달

- 경우회 회장단, 조직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

구흥일 경우회장을 비롯한 경우회 회장단 일행은 지난 3월 23일 허준영 전 경찰청장에게 120만 재향경우회원들의 뜻을 모아 감사장을 전달하고 경찰청장 재임 기간중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명예회장으로서 전현직 경찰관의 사기진작과 적극적인 검·경간의 수사권 조정 추진 등 조직발전에 기여한 공을 높이 치하했다.

법률상식

자동차 수리 또는 매수의뢰중 사고책임은 ?

— 김 진 (경우회 재정관리처장)

자동차 차주가 차량을 매도하기 위하여 수리업자에게 의뢰하자 그 업자가 차량을 수리하여 시운전을 해보고 가격결정을 하고 매수하겠다고 하여 차량을 인도한 뒤 수리업자가 부품 구입 및 유흥목적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업자에게 단순히 그 수리만을 위하여 자동차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 수리업자로부터 그 자동차를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받자 그 매매대금 결정을 위하여 그로 하여금 자동차를 인도한 뒤, 그 수리업자가 부품구입 및 유흥목적으로 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수리업자가 그 자동차의 수리에 필

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운전할 것을 용인하였고, 그 차량이 자신의 의사대로 수리나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시운전의 목적대로만 운행되지 아니하고 시운전을 겸한 수리업자의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그 자동차에 대한 일반적, 추상적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추진되는 소유자로서는 사고 당시의 자동차의 운행에 있어 그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수리업자와 공동으로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판례 요약)

김유평 여수해경 경우회장이 지난 3월 29일 경우장학기금 5천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구흥일 중앙회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5천만원을 선뜻 내어 놓은 김 회장은 『평소 경우회와 경찰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었고, 조직발전을 위해 東奔西走하고 계시는 구 회장님을 보면서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용단을 내리게 되었다』면서 『우수한 경우자녀들에게 면학의 꿈을 키워 주는데 활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한번 警察은 영원한 警察』이라는 소신에는 언제나 변함이 없다며 『中長期的으로 장학회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기금을 기탁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듯 매사에 적극적이고 희생정신으로 일관해 온 김 회장의 남다른 삶의 자세는 현직시절부터 남달랐다.

그는 지난 75년 3월 경찰에 투신한 이래 제주, 여수, 목포, 부산 등지에서 海警署長을 역임하면서 치안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안녕과 질서,

그리고 경찰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던 것이다.

또한 퇴임 이후에도 여수에서 (주)한려항만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제 2의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나라사랑을 위한 무료 태극기 보급 운동을 펼쳐 오고 있다.

『평소 사업관계로 외국을 드나들며 낯선 이국 땅에서 접하게 되는 태극기가 주는 막대한 감동과 자부심을 느낀 것이 태극기 보급운동을 펼쳐지게 된 계기』라는 김 회장은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이 운동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 창설 당시부터 직원들과 함께 「한려사랑」이란 모임을 결성하고 자신의 지원금과 직원들의 적립금으로 기금을 모아 매년 3.1절과 8.15 광복절 등에는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하동군 등을 비롯해 전남과 경남 일대에 무료로 태극기를 보급하고 있다.

김 회장이 지난 95년부터 최근까지 무료로 보급한 태극기는 2만 7천



김유평 여수해경회장이 구흥일 중앙회장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여매,

그는 이를 위해 기금 1억 5천여만원을 출원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여건이 되면 독도에도 태극기를 전달하고 싶다』고 한다.

한편 김 회장의 봉사활동과 지역사회 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나라·이웃·부모·동료·자식사랑 등 5대 실천운동으로 이어졌다.

그는 이웃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지의 무의탁 독거노인 및 소년 소녀 가장 등 불우이웃 돕기에도 나서 1백 90여명에게 1천 4백 여만원의 성금과 부식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97년부터 광양항 작업현장의 무상 방역 및 부두작업중비산된 원료를 수거해 재활용케 함으로서 쾌적한 환경조성에도 앞장서온 공로 등을 인정받아 지난 해 10월 지역개발 부문에서 「여수시민의상」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국가와 경찰, 警友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싶다는 김 회장.

그는 『앞으로도 경우회는 경찰인들의 영원한 마음의 안식처로 생각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96년부터 광양시와 순천시 등

警友會員 취업알선 적극 추진

최근 경우회는 손해사정 회사에 3명(서울2,부산1), 신용회복 위원회에 3명 등 총 6명의 경우들을 추천해, 그들이 새로운 직업을 갖고 사회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경우회가 추천한 회사는 각각 교통사고 손해사정을 주업무로 하는 곳과 사금융 채무에 대한 해결책 제시 등 사금융 애로를 상담하는 곳으로, 이들 업체는 공신력 있는 경우회에 사고조사 경험에 있는 회원 및 수사 및 조사 분야에 근무했던 회원들의 추천을 요청 했었고, 경우회는 조직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

는 회원들중 모범적인 경우들을 선발해 취업을 의뢰했다.

한편 이번에 취업에 성공한 김 모 회원은 『경우회에서 이렇게 적극 취업알선에 도움을 줌으로 老後에 제 2의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며 『30 여년간 국가에서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자세로 적극 일할 각오』라고 소감을 밝혔다

경우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구직업체 발굴을 통해 회원들이 현직 사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회원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카메라 현장



기흥골프장 운영 관련 대책회의

재향경우회는 지난 3월 21일 오전 11시 중앙회 사랑방에서 구흥일 경우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임원, 골프장 운영관련 전문 식견을 가진 경우회원, 무궁화회 회장단 등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기흥골프장 계약 만기에 따른 대책회의를 갖는 한편 3월 24일에도 역대 치안총수들을 초청하여 同一 시간에 대한 설명을 갖고 元老들의 자문을 구했다.(사진은 지난 3월 21일 가졌던 대책회의의 모습)

警友會 2단계 跳躍 착수

- 금년도 제 1차 이사회 개최 -



재향 경우회는 지난 3월 15일 오전 11시 중앙회 회의실에서 금년도 제 1차 이사회를 갖고 「지난 해 세입세출 결산안, 금년도 회비결정안, 정관 및 제규정 변경안」 등을 의결하는 한편 당면현안에 대한 의견교환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구흥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번 경우회장 경선에서의 압도적인 지지는 경우회를 이 시대에 걸맞게 업그레이드해 달

라는 전국 회원들의 여망과 조직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임기가 끝날때 까지 한마음으로 전력투구할 것을 다짐한 바 있다』고 전제하고 『조직발전을 위한 1단계로 지난 해 전국 경우회와 경찰관서를 방문해 「전 현직이 하나 되자」고 호소한 결과, 이제는 현직에서 선배 경우조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면서, 『금년부터는 그 2단계로 본격적인 경우회 발전을 위한 도약

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구 회장은 『앞으로 회장단과 기획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으고, 전국 이사회를 통해 중론을 모아 획기적인 조직발전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오늘 중요한 안건들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사회는 제 1호 안건 「지난 해 세입세출 결산안」은 원안대로, 제 2호 안건 「2006도 회비결정안」은 당초 연회비를 2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전국 경우회의 실정을 감안해 현행대로(연회비 1만 2천원, 평생회비 20만원)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3호 안건 「정관변경안」과 4호 안건 「제규정 변경안」은 현 실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을 원안대로 통과시켰고, 기타 기흥골프장 이익배당 재계약 문제, 경우회 會章 변경 문제 등 당면현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갖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쇠파이프, 죽창」 버리고 「평화시위 문화」 정착으로!!!

- 무장한 폭력시위대를 방패로만 막는 경찰은 지구상에 우리나라 밖에 없다.
公權力이 무너지면 國家紀綱이 무너지고 亡國으로 가게 된다. -

1. 공권력은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것입니다.

- 민주국가의 경찰권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정당한 공권력이며, 정통성이 확립된 민주국가에서 폭력시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불법행위입니다.
- 무장한 폭력시위대를 방패만 들고 어떻게 막으라는 것입니까?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정부청사 보호를 포기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찰의 강경진압만을 탓할 수 있습니까? 불법 폭력시위 근절을 위한 정부와 사법기관의 강력한 법집행을 촉구합니다.
- 평화적 시위에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시위대의 주장을 정부와 언론, 모든 국민들이 경청하는 분위기를 조성 합니다.

2. 아직도 폭력시위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 “홍콩 경찰은 시위대의 발길질에도 놀라더라. 한국도 비폭력의 새로운 시위문화를 만들어 가야한다”는 한 국회의원의 말을 듣고 자괴감을 느낀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 과잉진압 문책과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기동대원 명찰』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쇠파이프와

복면을 벗어 던지고堂堂하게 준법 평화시위로 전환해야 합니다.

- 준법 평화시위는 적극 보호하되, 『경찰통제선』(폴리스 라인)을 넘기만 하면 가차 없는 강경진압과 엄한 처벌로 범질서를 유지하는 선진국 경찰의 준엄한 모습을 보고, 우리 경찰도 시위대도 배우고 반성하여야 합니다.

3. 전·의경은 국법질서를 수호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들들입니다.

- 전·의경은 신성한 국방의무를 위해 나라의 부름을 받아堂堂하게 국법질서를 수호하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들들이며, 이들을 범피 집단처럼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 『쇠파이프와 갈라진 죽창으로 눈을 공격해오는 술 취한 시위대가 소름끼친다.』는 실명한 전경의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 경찰에게만 과잉진압이라는 비판으로 책임을 묻게 하고 과격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인권위원회」의 태도는 선량한 국민을 분노케 합니다.